

전동평 군수, 亞문화부문 지방자치 大賞 수상

전동평 영암군수는 지난 16일 제25회 아시아문화경제인 교류의 밤 행사에서 '2018 아시아문화경제진흥부처 지방자치大賞'을 수상했다.

아시아문화경제진흥원(이사장 강성재)에서는 매년 아시아에서 우수하고 덕망이 있으며 각 분야에서 특출한 성과와 봉사정신을 몸소 실천하여 아시아의 새로운 교류와 도약에 정신적 귀감을 주고 모범이 되는 인물을 추천받아 엄격한 공적심의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하고 시상하고 있다.

이번 지방자치大賞을 수상한 전동평 군수는 <하나된 국민 풍요로운 복지영암> 건설을 위해 민선6기 군정의 눈부신 성과를 기반으로 민선7기 군민대통합과 군민행복시대를 완성하여 <모두가 잘 사는 일등영암>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것을 다짐했다.

전동평 군수는 6만 군민의 부름을 받고 민선6기 영암군수가 되어 '혼자 꾸는 꿈은 그냥 꿈이지만, 군민과 함께 꾸면 현실이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군민화합과 풍요로운 복지영암 건설을 목표로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민선7기 영암호를 이끌어 가고 있다.

지난해 채무제로 선언에 이어, 군 예산은 꿈의 5천억원 시대를 활짝 열었으며, 2018 영암방문의 해를 선언하여 지난 4월 왕인

군민행복시대 완성...아시아 우수·덕망 있는 지자체장 선정 아시아 모범 단체장 선정...군정 성과 국내·외 역량 입증



경 전 동 평 영암군수 축 2018 아시아문화경제진흥대상 '지방자치부문' 수상

문화축제를 시작으로 군 역사상 최초로 열린 전남제천의 성공적인 개최와 종합우승이라는 쾌거도 거머쥐었다.

국립공원 월출산 지정 30주년 기념행사와 호남권 최초로 개최된 국내 최대 하늘 축제인 제5회 항공레저스포츠제전은 5만여명이 찾아와 대성황을 이뤘으며, 월출산 국화축제는 75만명이 찾아와 단일축제로는 최대 관객을 기록하며, 가을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복지부처 20관왕 달성, 각종 행정실적평가 159개 분야

수상, 법률소비연맹 주관 민선6기 전국 지자체장 공약이행평가 대상 수상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실시한 전국 지자체 공약이행평가 최고등급(SA)선정 등 선진행정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앞으로, 민선7기 4년은 신성장동력과 미래 먹거리 창출을 통해 지속 성장이 가능한 4대 핵심발전 전략산업의 든든한 토대 위에 군민행복시대라는 불멸의 금자탑을 쌓아 올리는 소중한 시간으로 만들어 <더 나은 영암, 더 행복한 군민>을 위해 더욱 힘

찬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전동평 군수는 수상 소감을 통해 "지난달 대한민국 모범단체장에 이어 지방자치대상까지 수상하게 되어 가슴 벅하다. 이는 6만 군민과 16만 향우, 1천여 공직자와 함께 이뤄낸 위대한 업적이며 더욱 잘하라는 뜻으로 생각하고 군민대통합과 군민행복시대를 완성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며, "하루하루가 새로운 역사가 될 민선7기 희망찬 영암군의 행보를 눈여겨 봐달라"고 말했다.

/이민행대표기자

전동평 군수, 공공비축미곡 매입현장 방문



전동평 군수는 지난 20일 삼호읍 서창리 공공비축미곡 건조벼 현장을 방문했다.

전동평 군수는 "올해는 폭염과 태풍 등 여러 기상이변으로 영농에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영농에 최선을 다해 결실을 맺은 만큼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영암군 금정면, 영산강 부유쓰레기 수거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하천·강·바다는 하나



영암군 금정면 남녀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고재남·최관순) 회원 등은 지난 22일 금정면 소재 금천 일원에서 '영산강 부유쓰레기 수거사업'을 실시하였다.

금정면 금정면 남송리에서 금정면 안노리 구간 폭 20~120m, 길이 8km의 지방 2급 하천으로, 이날 회원들은 하천에 유입된 비닐, 스티로폼, 병, 조목류 등을 포함한 각종 부유쓰레기를 집중 수거하였다. 고재남 회장은 회원들에게 "하천과 강, 바다는 하나"며, "소중한 물을 깨끗하게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그리고 당장 마시는 한 모금의 맛있고 깨끗한 물을 생각하며 앞으로도 물과 환경 보호에 항상 앞장서자"고 당부했다.

영암군, 2019년 본 예산 4,254억 편성

단일 규모 첫 4천억 원 돌파, 올 해 본예산 대비 310억 원 증액 사회복지분야 1,023억원(24%)...농림분야 939억원(22%) 편성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4,254억원의 2019년도 본 예산안을 편성하고 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금년 본예산 3,944억 원 대비 310억 원(7.9%) 증가한 수치이며 올해 재정규모 5천억 원(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돌파한데 이어 본예산 단일규모는 처음으로 4천억 원을 넘어섰다.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금년 대비 313억 원(8.9%)이 증가한 3,844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12억 원(18%)이 증가한 78억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332억 원으로 15억 원 가량 감소했다.

기능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 1,023억 원(24%), 농림해양수산분야 939억 원(22.1%), 환경보호분야 494억 원(11.6%), 국토지역개발 및 수송교통분야가 467억 원(10.9%), 문화 및 관광분야 243억 원(5.7%) 순으로 '다양한 계층의 복지증진'과 '농업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처음으로 시행되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급(2억 6천만 원)을 비롯해 친환경급식 제공 등 아동 및 청소년, 여성 복지증진을 위해 192억 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33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건강검진비 지원 등에도 40억 원을 책정,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군민의 삶을 전 생애주기에 걸쳐 책임지는 포용적 복지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도 사회적 약자 및 소외 계층을 위해 저소득층 생활지원 등 저소득층 복지사업에 100억 원, 장애인 복지 지원 5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직불제 208억 원, 친환경농업기반 확충 80억 원, 축산(임) 및 방역사업 279억 원, 일반농산어촌개발 123억 원과 기계화경작로 및 소하천 정비 100억 원 등을 편성해 농업발전

에도 큰 비중을 두었다. 아울러,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숲 조성 50억 원,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 및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 48억 원, 대불지구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 및 영암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57억 원, 관광기반 확충 및 문화예술 지원 80억 원 등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및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철호 기획감사실장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방세수 감소로 인해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일반회계기준, 올 해 본예산 대비 각각 255억 원과 72억 원 증액된 지방교부세 1,796억 원 및 국도비 보조금 1,511억 원으로 세입을 확충해 민선7기, 주민복지증진 및 농업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우승희 도의원, 학생중심 전남교육 주문

학교장의 노력·지역사회 소통 강화 촉구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우승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암1)은 시군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공립유치원의 공교육 책임성 강화, 운반급식 학교의 애로사항 청취, 편안한 교복과 합리적 구매를 위한 학교장의 노력, 학교장의 지역사회 소통 강화" 등을 촉구했다.

우 위원장은 "최근 사립유치원

감사결과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있었는데, 공립유치원도 최근 5년간 16개 유치원에서 47건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7개 유치원은 교육청의 3년 주기 감사 때마다 주의 처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전남도내 405개 공립유치원의 유아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이 74% 정도라며, 제한적 공동학구제 등을 활용하여 유아교육에서 공교



육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남 유아교육진흥원이 유치원에 대한 회계 등 관리업무에 대한 지도와 교육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각급 학교장의 지역사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주문했다. 우 위원장은 전남교육이 마을학교, 혁신학교, 교육공동체를 강조하고 있다"며, "시·군 교육

지원경비 건의, 학교발전기금 지원 등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환경을 위해 학교장들이 지역사회와 적극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장학교육 지원청이 추진한 마을 이장과 만남, 지역아동센터 이동식 학교버스 이용 등을 제안했다.

우 위원장은 교내 조리시설이 없어 인근 학교에서 조리한 음식을 운반해 급식을 실시하는 운반급식에 대한 학교장들의 의견을 듣고, 단독급식 실시와 냉동담자 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이민행대표기자

영암, 2년 연속 수계관리기금사업 우수기관 선정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 기금사업 성과 평가 결과 '수질오염 총량관리분야'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되었다.

영암군은 영산강 섬진강 수계에 해당하는 지역이며,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는 수계구간별 목표

수질을 설정하고, 그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한 허용 부하량을 산정하여, 해당 총량관리단위유역 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는 허용부하량 이내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산정된 허용부하량을 초과하면



해당 지역의 목표수질 달성 시 가

지 규모 이상의 건축행위 및 각종 개발 행위가 제한을 받게 된다.

영암군은 영산강수계 수질오염총량 관리를 추진함에 있어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개선 및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해 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수계기금사업 평가에서 2017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현대삼호중공업 금속노조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

삼호읍, 불우읍민 3명 각각 100만원씩 전달



영암군 현대삼호중공업 금속노조(지회장 손형림)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주력하며 11월 16일 불우이웃돕기 성금 300만원을 삼호읍사무소로 전달하였다.

이번 성금은 조선업의 불황으로 중공업 직원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더 힘든 상황에 처한 이웃들이 많을거라 생각해 소중한 마음을 모아 주신 분들의 정성이 담긴 기금이라 그 의미가 더 깊다.

손형림 지부장은 "올해도 변함없이 모금에 동참해준 동료들에게 고맙고 큰 액수는 아니지만 받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삶의 희망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300만원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한 후 생활이 어려운 삼호읍민 3명에게 각각 100만원씩 금융계좌를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영암읍 망호리 농가모임 '들녘' 이웃돕기 나서

사랑의 쌀 50가마 기탁

영암읍 영암읍 망호리 농가모임 '들녘'(최남근, 서운호, 유운중, 강승묵, 이우희)에서 지난 11월 20일 지역 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친환경으로 재배한 쌀20kg 50가마를 영암읍에 기탁했다.

영암읍 망호 들녘 농가대표(최남근 회장)는 2017년 서운호 총무가 쌀 20가마를 기탁하였으나, 올해는 회원전체가 참여하여 망호 들녘에서 친환경으로 재배한 쌀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탁하



게 되었다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용기 영암읍장은 "이웃을 생각하는 소중한 마음을 모두 담아 잘 전달하겠다고 앞으로 서로 나누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